민족문화연구 제100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100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6편, 일반 논문 11편을 포함하여 총 17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학문 영역별로는 국어학 2편, 현대문학 2편, 한문학 4편, 역사학 5편, 철학 및 종교학 3편, 영상문화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대별로는 근대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10편,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현대 연구 논문이 7편이며,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자료 『여와시집선』을 소개하는 해외한국학자료 해제가 수록되었다.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는 지난 96호와 97호에 이어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3" 특집과 더불어,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한국 문학/문화의 '이름 없는 자들'과 비정형 네트워크" 연구과제의 성과를 모은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 특집 두 가지를 준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각 특집 서두의 '특집의 말'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11편의 일반 논문과 1편의 해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조희영은 유협(劉勰, 465~521)의 문학이론서 『문심조룡(文心雕龍)』에 담긴 역학(易學) 사상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문심조룡』 문학론의 핵심인 '문심(文心)'이 바로 천인합덕(天人合德)을 추구하는 '도심(道心)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유협의 역학사상이 공자역[易傳] 사상에 근거하고 『역위(易緯)』의 한역(漢易) 사상을 매개로 삼아 하도낙서(河圖洛書) 사상을 펼침으로써 후대 송대 도서역학의 선하를 열었음을 설명하였으며, 유협 역학사상의 포괄적 소개를 통해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로 문학적 접근에 집중되었던 『문심조룡』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접근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천구는 그동안 주로 불교사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던 『삼국유사』가, 제왕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사기』류의 유교적 정치사서나 고승을 중심으로 하는 『해동고승전』류의 불교적 종교사서와는 달리, 정치사와 종교사, 유교사와 불교사가 상호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서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흥법」편이 주로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본기(本紀)'를 인용하면서 고승에 관한 서사에서도 고승전을 인용하지 않고 인물보다 사건을 중시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흥법」편의 서사가 고승 대신 제왕을 흥법의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고승과 제왕, 불교와 유교가 흥법을 위한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흥법」이 제왕 중심의 세속 정치사를 서술한 「기이」와, 순전히 불교사의 기원과 전개를 서술한 「탑상」 사이에 위치한 구성도 제왕 중심의 정치사와 불교 중심의 종교사가 어울러지는 『삼국유사』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삼국유사』를 역사나 종교의 관점이 아닌 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장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성환은 『삼성당사적』의 일문(逸文)을 바탕으로 삼아 구월산 삼성사(三聖祠)가 단군천왕당이 두 차례 이건되면서 환인·환웅과 합사(合祀)된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사의 구조와 부속시설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고려시대의 제사 실상과 고려와 조선의 제사의 차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평양에 단군묘가 건립되면서 일어난 삼성사 위상의 변화 양상 및 조선 전기 삼성사 폐치를 둘러싼 논의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제에서 삼성사의 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구월산의 단군전승에 대한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수의 '조선본 『故事成語考』 연구'는 조선본 『고사성어고』의 서지적 특징 및 현존본 현황, 간행 시기, 대상 독자 등 기본적인 사항을 해명하는 논문이다. 필자는 명대(明代) 학자 구준(丘濬, 1420~1495)의 저작으로 알려진 『고사성어고』의 '조선본' 간행이 조선 후기의 상업적 출판이 진행된 양상을 확인하는 유효한 시금석임을 지적하면서, 조선본 『고사성어고』에 대한 서지학적 비교와 더불어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현전하는 조선본 『고사성어고』들은 모두 동일한 계통으로 한 차례 중간(重刊)된 것임을 규명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로 전사 혹은 필사되고 유행했던 이 책이 18세기 중반부터 상업출판물로서 상당히 유행하면서 민간에서 초학자들을 위한 문장 학습서로 활용되었음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다.

장동우의 「『喪禮備要』의 판본에 관한 고찰」은 17세기 전반까지 조선 예학의 연구를 총결한 『상례비요(喪禮備要)』의 판본을 고찰하면서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8종 외에도 새로 10종을 추가한 총 18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문헌학적 접근을 통해 계통별 이본의 특징과 보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책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상례비요』가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지역별로 보급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는 예학서의 보급을 통해 예학 지식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탐색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박현순은 조선시대 과거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기준과 과정을 과거 응시자 명단인 '부거도목(赴擧都目)'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과거 응시의 요구 조건과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 초기에 관학(官學) 학적 보유자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던 원칙이 18세기 후반에 향교의 유생안이나 청금록 작성이 중지되면서 결국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지역별 교육 프로그램 참가 여부와 더불어 호적 입록과 유생 직역 보유 여부 등을 통해 새롭게 응시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을 천착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형식화된 조흘강 제도를 재정비하는 양상도 짚어내었다. 조선후기 과거 응시자의 증가 양상이라는 흐름의 저변에, 과거 응시자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려는 고심과 정책적 시도를 구현되는 현상을 조명한 흥미로운 연구성과로 생각된다.

이창익은 동학 계열의 신종교인 수운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도식 안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제강점기 신종교의 종교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논자는 수운교의 탄생과 성장, 분열을 과정을 우선 묘사하고, 그 가운데 1937년 일본 불교로의 '집단 개종'과 1938・41년의 '위장 개종'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대개 종교 내부의 자료를 토대로 삼기에 특정 입장에 치우치기 쉬운 식민지 시기 신종교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인 종교 역사의 서술을 위해서 종교 외부의 자료를 통해 접근하는 필자의 접근은 종교사 서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최희영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현순(玄楯, 1880~1968)이 하와이 거주 시절에 참여했던 공연 관련 활동을 태평양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는 현순이 1920년대부터 920년대부터 정착된 호놀룰루 내 다문화 환경과 1940년대 초 미・일간 관계 악화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라는 매개체를 민족의 자긍심 고취와 조국 독립 열망 표출의 도구로 인지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공연 각색 또는 자문 정도의 역할을 넘어 연기자로 한층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 기독교사회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가이자 디아스포라 문화사의 주체로서 현순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 한인 공연문화사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영은 1960년대 초반 신상옥 감독의 영화 〈성춘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열녀문〉이 '열녀'라는 전통적 한국 여성의 표상을 어떻게 전유하여 여성 수난의 멜로드라마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했는지에 주목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1960년대 문예영화 속 근대적 열녀들이 변화된 근대적 현실 속에서 현실과 불화하면서 멜로드마라적 비극성을 가시화한다는 통찰은 열녀를 통해 상상되는 전후 여성의 모순적 정체성이 지닌 한계와 더불어 근대화된 세계로 비약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일면을 읽는 데 1960년대 문예영화의 재음미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준환은 학술 용어 자료 구축 결과물 가운데 특정 용어의 정의문으로 제시된 것들을 검토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정의문의 형식이 지닌 구조적 양상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논자는 학술 용어 정비 결과물에서 정의문이 제시된 방식을 10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데서 나아가, 몇몇 유형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제어의 재포함, 정보 제시 순서의 오류, 명시적인 정의의 부재, 종개념-유개념 제시의 불충분함 등의 보완 사항 및 정비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안하였다.

이주랑은 탈북민의 언어에 관한 학계의 선행연구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자료에서 다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직설성' 개념의 오류와 한계를 비판하였다. 논자는 '직설성'이라는 애매한 외연 안에는

‘직접 화행 사용’, ‘거침없는 의사 표현’, ‘명시적인 의사 표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 ‘문자 그대로 이해’와 같은 서로 다른 개념들이 뭉뚱그려져 있었다고 진단한다. 학계와 일선 교육 현장 모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언어적 편견 혹은 선입견을 벼아프게 지적한 성과라고 하겠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소개로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 『여와시집선(餘窩詩集選)』에 대한 박희인의 해제가 실렸다. 이 자료는 목만중(睦萬中, 1727~1810)의 시 가운데 10% 내외를 수록하고 있는 선집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할 목만중의 자술 기록과 새로 발굴된 한시 12수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3년 8월 제100호 발간을 맞은 『민족문화연구』에는 국어국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 각 분야에서 전통적인 연구성과를 심화·보완하면서도 참신한 시각을 모색하는 성과들이 수록되고 있다. 오는 9월 22일(금) 예정된 『민족문화연구』 제100호 발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령 제100호를 맞은 『민족문화연구』가 앞으로도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종합 학술지로서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지닌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공감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